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090908003618&subctg1=&subctg2=>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세계일보>

서울대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창간호 발간

아돌프 히틀러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전쟁 책임을 면제받고 독일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히틀러를 평화주의자로 칭송한다.

역사에 가정은 없는 법이다. 독일에서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일이 벌어졌다. 일본은 전쟁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 세계의 보루가 됐다. 히틀러와 흡사했던 히로히토(裕仁)는 사후에도 평화주의자로 미화됐다.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국은 개항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원폭 투하를 거쳐 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경험한 역사적 고비마다 등장했다. 그때마다 일본 역사의 방향은 크게 틀어졌다.

윤상인 한양대 교수는 “전후 일본은 반공의 교두보와 자본주의 경제의 중개기지의 역할을 기꺼이 수용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포스트제국 질서의 중심부에 편

입됐다”고 설명한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1년 2회 간행을 목표로 발행한 ‘일본비평’의 창간호 특집 ‘현대 일본사회의 형성과 미국’에서 윤 교수는 1945년 9월 히로히토와 더글러스 맥아더가 함께 찍은 사진에 주목한다. 그는 “군복 차림에 가부장의 위엄과 여유를 지어 보이는 맥아더 사령관과 그 곁에 정장 차림에 직립 부동으로 있는 히로히토의 사진에서 초강대국 미국과 옛제국 일본이 ‘결혼’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양국은 ‘결혼’으로 미국 헤게모니 구축과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역사 망각을 ‘혼수’로 교환했다”고 말했다. 일본을 동아시아 전진기지이자 자본주의의 선전장으로 삼으려고 한 미 군정의 보호 아래, 히로히토는 전쟁 책임에서 벗어나고 평화주의자로 미화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1945년 9월 맥아더와 히로히토가 나란히 선 사진에는 굴복과 종속을 통해서라도 과거의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했던 일본의 정치적 욕망이 내포돼 있다.



일본과 미군정의 ‘포용’과 ‘노림수’에는 천황제가 매개체가 됐다. 미군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본은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제를 존속시킬 수 있었지만 이는 왜곡된 역사인식의 근원이 됐다. 박진우 숙명여대 교수는 “천황제를 존속시켜 미 군정은 일본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태생적으로 친미적일 수밖에 없었던 히로히토는 미일 간에 지속적인 ‘포용’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며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전쟁 책임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천황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패전국 일본이 친미국가가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도왔다는 분석에는 권혁대 성공회대 교수도 동의한다. 권 교수는 만화를 통해 일본인들의 원자폭탄에 대한 감정 변화를 풀이한다. 애초 일본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에 전율하며, 미국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 분노의 감정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미 군정의 정령을 받아들여야 했고, 일본인들에게 미국의 가해 책임은 핵무기와 그 핵무기를 낳은 '근대성에 대한 비판'으로 뭉뚱그려지게 됐다. 권 교수는 "일본의 유명한 반전 만화가 나카자와 게이지는 '맨발의 겐' 등 초기의 작품들에서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가득 담았지만, 경제적 풍요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친미국가'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어느 순간 미국의 원폭 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고 풀이한다.

전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본은 책임은 가린 채 평화주의를 설파하는 이중적 의식을 보여왔다. 히로시마 원폭위령비의 문구 "편안하게 잠드소서, 잘못은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처럼, 지금도 일본에서는 책임의 주체는 사라지고 '힘없는 평화'의 메시지만 떠돌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의도된 밀월 관계를 유지한 것은 1955년 정권을 잡은 자민당이 '탈아입미(脫亞入美)'의 친미노선을 정책 기조로 삼은 데서도 확인된다.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아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흐름은 잘못된 일본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본비평' 창간호 지면을 메운 학자들의 공유된 인식이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기사입력 2009.09.08 (화) 18:37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GYE.com 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